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STEF SOTO, TACO QUEEN

가제 : 타코 여왕 스테프 소토

저자 : Jennifer Torre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6년 9월

분량 : -

장르 : YA 소설



#### 부모님의 과잉보호나 할라피뇨 냄새가 진동하는 아빠의 타코 트럭이 다 지긋지긋한 열세 살 소녀

이제 열세 살, 어엿한 7학년생이 된 스테프는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데리러 오는 아빠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부지런히 달려 온다는 건 잘 알지만, 문제는 아빠가 아니라 학교 주차장 전체에서 단연 튀는 아빠의 트럭이다. ‘티아 펠라’라는 글씨가 큼직하고 요란하게 써 있는 트럭은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할라피뇨와 식용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아무리 꼼꼼하게 세차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누군가는 분명 배를 꼬르륵거리며 좋아할 냄새지만 스테프처럼 늘 머리카락이며 손가락에서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질릴 수 밖에 없다.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들을 꼬마 자동차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거대하고 냄새 지독한 아빠의 트럭은, 바로 타코를 파는 트럭이다.

스테프도 지금보다 어릴 때는 티아 펠라를 몰고 나타나는 아빠가 자랑스러웠다. 방과 후에 주차장에 아빠의 타코 트럭이 서 있으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갔고, 아빠는 시원한 음료수와 콘칩을 인심 좋게 나눠주었다. 그 사이에서 아빠 팔에 번쩍 들려 조수석에 앉혀지곤 하던 스테프는 웬지 자신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학년도 올라가고, 친구들 보기에다 창피했다. 스테프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제발 주차장에 티아 펠라를 대놓고 기다리지 말아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사정을 해왔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갈 테니 정 데리러 와야겠으면 학교 바로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다려달라고도 이야기했다. 계속 동의하지 않던 부모님은 마침내 지난 주말에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게 웬 일일일까, 그 약속은 어딜 갔는지 아빠는 오늘도 어김없이 주차장에 타코 트럭을 딱 하니 세워두고 스테프를 보자마자 손을 마구 흔들어댄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즐겁게 학교 건물을 나서던 스테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짜증이 솟구쳤다.

**제발 없어지기만을 바랬던 타코 트럭을 앞장서서 지켜내며 조금씩 배우는 가족과 우정의 소중함**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은 스테프의 친구를 위해 새로운 메뉴도 열심히 개발하고, 스테프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씨 좋은 아버지지만 스테프는 제발 아버지가 타코 장사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학교 아이들이 자신을 ‘타코 여왕’이라고 놀려대는 것도 지긋지긋했다.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들처럼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틸라 펄라는 이제 그만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낡아빠진 트럭이 되어버린 틸라 펄라가 맨 처음 집에 왔을 때,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스테프도 얼마나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냈는지, 스테프는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소중한 새 식구가 생긴 것 같았던 그 기분도, 이제 스테프에게는 지겨움과 미움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예상치도 못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스테프는 틸라 펄라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누구보다 타코 트럭이 없어지길 바랬던 스테프는 트럭을 잃지 않으려 있는 힘껏 싸우면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한다.

가족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 주관과 소신을 갖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법을 서서히 배워가는 착한 소녀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제니퍼 토레스(Jennifer Torres)는 17세에 처음으로 신문에 글을 기고했다. 이후 노스트웨스턴 대학교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프리랜서 기자이자 아동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 SHADOW MAGIC  
가제 : 그림자 마법  
저자 : Joshua Khan  
출판사: Disney-Hyperion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노예 시장에 붙들린 소년, 그 앞에 나타난 흑기사

‘검의 해안’ 앞에 길게 늘어선 거대한 항구에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장이 있다. 이 시장에서는 각양각색 물건들과 함께 사람도 물건처럼 노예로 팔려나간다. 남자, 여자, 어린이 이 가릴 것 없이 노예 상인에게 붙들려 쇠고랑을 찬 채로 전시된 사람들은 한가롭게 시장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라도 고르는 양 이리저리 훑어보고 찌러보고 따져보는 굴욕적인 일을 당해도 꼭 참아야 한다. 양전히 굴지 않으면 노예 상인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니까. 스론도 그 비참한 노예들 사이에 끼어 있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이나, 자신을 생선 고르듯 손으로 쿡쿡 쑤셔대는 손님에게 마구 대들었다가 주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은 건강하고 튼튼하면서 머리가 너무 나쁘지 않은 아이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말 잘 듣는’ 아이이다. 이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 스론은 처음에는 멀끔한 외모로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지만 늘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욕설을 내뱉고 입을 벌려보라거나 팔을 들어 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판매를 무산시키기 일쭤다. 스론은 어쩌다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을까?

여섯 개의 마법 왕국이 지배하는 세상, 그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소속된 사람들은 스론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곳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고향을 제 발로 떠났다가 갈 곳 없어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과 달리 스론에게는 이런 처지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말 못할 이유가 있다. 고향에서 저지른 일, 아버지가 은밀하게 가르쳐주신 것들, 그 모든 사연이 스론을 낫선 항구에 전시된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는 스론이 고향에 두고 온 막내 동생과 동갑인 여섯 살짜리 쌍둥이 꼬마 둘을 항부로 대하는 상인에게 달려들어 크게 한 방 먹이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어진 위기 상황에 처한 순간, 어디선가 기다란 칼을 옆구리에 차고 검은 말을 탄 남자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타이번이라 부르는 잿빛 눈의 그 남자는 스론을 때려 눕히려는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자신이 사겠다고 제안한다. 타이번은 스론을 깨끗이 씻기고 입힌 후 호화로운 식사까지 대접한다. 대체 그는 누구일까? 왜 사람들은 그가 타이번이란 사실을 안 뒤부터 오들오들 떨고, 그가 하는 말에 제대로 대꾸도 못할까?

###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는 적들, 홀로 적들과 대치해온 공주 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특별한 소년

타이번은 여섯 개의 마법 왕국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 무서운 나라로 소문이 자자한 게헤나의 글룸 성과 게헤나의 통치자들을 목숨 바쳐 지켜내는 기사였다. 흑마술을 부리며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깨우고 좀비를 신하로 쓰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게헤나의 주술사들은 일명 '그림자'로 불린다. 타이번이 하는 일은 이 그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그가 왜 하필 말썽만 일으키는 스론을 택했을까? 자신을 데리고 죽지 않는 자들이 지배하는 곳, 글룸성을 향해 긴 여행길에 오른 타이번의 속내를 스론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편, 게헤나의 글룸 성에서는 한바탕 피 바람이 지나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통치자가 왕좌에 앉아 있다. 그림자들의 왕, 흑마술을 쓸 줄 아는 특별한 주술사 가문이 게헤나를 오랫동안 다스렸지만 호시탐탐 권력을 넘보던 이웃 왕국의 급작스러운 공격에 끝내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단 한 명 남은 흑마술사, 어린 소녀 릴리만이 겨우 살아남아 거대한 왕국의 일인자 자리에 올랐다. 릴리도 적들의 손에 사라져버린 가족들처럼 특별한 마술을 부릴 수 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능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산산조각 내려는 적의 간계에 맞서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럴 수가 없다. 여자는 마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규칙을 깨고 마술을 사용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릴리를 허수아비처럼 왕좌에 앉혀두고, 교활한 배신자들은 그녀를 게헤나를 집어 삼키려는 라이벌, 빛의 왕국을 이끄는 솔라 왕가의 가브리엘 왕자와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는 계락을 세운다. 이대로 가다간 게헤나도, 자신의 삶도 다 끝나고 말겠다는 생각에 체념한 릴리 앞에, 기적처럼 타이번과 함께 스론이 나타난다. 뜻밖의 사건으로 끈끈한 친구가 된 릴리와 스론, 두 사람은 제멋대로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릴리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적들을 찾아 나선다. 두 사람은 꺼져가는 게헤나 왕국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을까?

신기한 마법으로 각자의 왕국을 다스리는 여섯 개의 가문들, 로빈 후드를 연상시키는 거침 없고 용맹한 소년, 좀비, 팔라딘, 유령, 대형 박쥐 등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거대한 판타지 세계에서 역동적이고도 중독성 강한 모험이 펼쳐진다.

#### <저자 소개>

조슈아 칸(Joshua Khan)은 영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대 성들이며 전설 속 영웅, 괴물 이야기에 심취했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고 있다.